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

“울산 시내버스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지난해 12월21일 울산광역시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였다.

변화는 있었지만 울산 시내버스의 새로운 불편이 시작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시행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버스 노선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된 이후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통학하는 학생들과 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구민들에게 더욱 큰 불편을 미치고 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수단으로서 구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책임져야 할 대중교통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인 환경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중구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에 접수된 수십 건의 민원뿐 아니라 밖에서 마주치는 구민들도 한결같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반구동 주민들은 성남동 방향 노선이 줄었으며 버스 노선 배차 시간이 15분 증가하였고, 직행 버스들이 환승버스가 되어 출,퇴근 시간이 2배 가량 늘었다고 한다.

복산동 주민들은 북부순환도로 경유하는 각 버스별 배차간격과 현행화 되지않은 버스표지판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며, 성안동 주민들은 30분 50분 배차간격으로 시내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운동에서는 중공업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동구 방면 기존 4개 노선을 114번 1대로 통합 운영하며 무거동으로 가서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구의 각 동에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개선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음에 한명의 울산 시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적인 버스 노선을 추가하라.

울산 시민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보다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 중구의회는 중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안이 중구민의 행복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2025년 2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